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 (1) 全南地域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blications of Jeonla-Do in the Earli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1) Especially about Jeonnam Region

안 현 주 (Ahn, Hyeonju)*

◁ 목 차 ▷

1. 緒論	3.1 시기별 분석
2. 全南地域의 書籍出版	3.2 주제별 분석
2.1 문헌상의 간행 사실	3.3 지역별 분석
2.2 현존본의 실태 조사	3.4 국가별 편저자 분석
2.3 全南地域 간행본의 書目	4. 結 論
3. 全南地域의 출판양상	<참고문헌>

<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의 전남지역의 출판문화를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고, 서목을 작성하여 시기별, 간행지역별, 주제별, 편저자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156종의 서적을 간행하였으며, 명종조 이후부터 서적의 간행이 활발하였다. 또한 현존본들의 간기를 통해 서적의 대부분이 관판본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행의 주도자들은 관찰사, 목사, 현감 등 지방관들이었고, 간행된 서적의 주요저자는 주희, 김안국, 이정, 이황, 당대의 명현들이었다. 광주목, 나주목, 순천부, 능성현, 담양부 등이 주요 간행지였으며, 이들은 당시 행정의 중심지였다. 주제별로는 유가류, 별집류, 소학류, 총집류, 예술류, 전기류, 의가류, 사서류, 예류, 병가류의 서적이 많이 간행되었다.

要語: 전남, 출판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treenbird@hanmail.net)

접수일: 2010년 8월 26일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is to grasp the publication trend of Jeonnam area in the earli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before the Hide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ubjects, dates and places of publication, and authors. Major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re were 156 kinds of books printed in Jeonnam region. Most books were actively published since the years of King Myungjong(明宗). Also the publication records of books remained currently evidence that most were the regional government publications(官版本). Among prominent authors were Ju Hee(주희), Kim Anguk(김안국), Yi Jeong(이정), Yi Hwang(이황), and several famous scholars of those days. Gwangju, Naju, Suncheon, Nungseong, Damyang, which the centers of regional administration, were also the main places of publication. The analysis of their subjects shows that the number of books classified is in the order of the Confucianism(유가류), anthologies(별집류), the educational books for children(소학류), the books of arts(예술류), biographies(전기류), medical science(의가류), the Confucious classics(사서류), the books of courtesy(예류), and military science(병가류).

Key words: Jeonnam, Publication

1. 緒 論

義와 멋의 고장 전라도는 백제 때부터 유학을 일본에 전하였으며,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을 받아들였는데 당시 활약하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문종대 중국에서 태묘와 국자감의 그림을 가지고 온 김양감, 고종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유교적 덕목과 생활관습을 규정한 『居家十訓』을 저술하고 효자로 유명한 서릉, 충선왕대에 국학박사를 지낸 이성 등이 있다.¹⁾ 전라도는 하서 김인후를 선두로 성리학 연구에 뛰어난 학자와 문인을 많이 배출하였다. 己卯名賢으로 최산두, 양팽손, 박상 등이 있고 박상의 문하에서 임억령, 송순이 나왔고, 면양정의 문하에서 정철, 김성원이 나왔으며,²⁾ 박순, 기대승, 이항, 강항, 안방준, 기정진 등의 유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성리학을 몸소 실천한 전라도의 선비들은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임진왜란 중에 운암·금산·웅치·이치·용인·수원·행주·상주·진주성 전투·한산도·명량·노랑 해전 등 많은 육전과 해전에서 의병장과 의병으로 그 주역을 담당하였다.³⁾

조선시대의 전라도는 현재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일대를 차지하던 행정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앞 글자와 전라남도 나주시의 앞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고 부른다. 전라도는 동쪽으로는 지리산과, 서쪽과 남쪽으로는 바다와, 북쪽으로는 충청도와 경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동쪽에 자리 잡은 지방이다.

1530년에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⁴⁾에 의하면, 전라도는 府 1, 牧 3, 都護

1) 고영진, “호남사림의 형성과 특징,”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 (광주: 사회문화원, 2002), 52-53.

2) 안진오, “호남의 유학사상,” 『호남전통문화론』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9), 322-329.

3) 이희권, 『역사로 보는 전라도』 (전주: 신아출판사, 2005), 157.

4) 조선은 건국 후 통치상의 필요에서 지리지 편찬의 중요성을 통감, 세종의 명에 따라 맹사성·신색 등이 1432년에 『新撰八道地理志』를撰進하였다. 그 후 명나라에서 『大明一統志』가 들어오자, 양성지·노사신·강희맹·서거정 등이 세종의 명으로 이 체제를 본따고 『신찬팔도지리지』를 대본으로 하여 1481년(성종 12)에 『東國輿地勝覽』을 완성하였다. 이후 1486년에 增刪·수정하여 『동국여지승람』 35권을 간행하고, 1499년의 개수를 거쳐 1530년에 이항·홍언필의 증보로 이 책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府 4, 郡 13, 縣 36개처로 구성되어 있다.⁵⁾ 또한 정조조에 간행된 『大典通編』⁶⁾에는 府 1, 牧 4, 都護府 7, 郡 11, 縣33개처로 변경되었다.⁷⁾ 1896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로 나뉘었고, 1946년에는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나뉘어졌다. 조선시대에 수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한 전라도는 토지와 산물이 풍부하였고, 서적의 간행이 활발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

김치우님이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를 통해서 조선전기 각 지방에서 개판된 간본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를 하였고,⁸⁾ 배현숙님은 『미암일기』를 근거로 선조초 지방 책판에 관한 연구⁹⁾를 수행하였으며, 천혜봉님은 조선전기의 우리나라 서적을 다량 소장하고 있는 일본 봉좌문고본에 대한 연구¹⁰⁾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한층 진보된 온라인 고서목록의 도움으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조선시대 전라도의 출판문화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임진왜란 이전에 전라도에서 간행된 서적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라도의 출판문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연구를 수행하는 중 정리해야 할 자료가 많아서 현재의 全南地域과 全北地域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현존본 조사를 통해 전남지역에서 간행된 서적들의 서목을 작성하고, 서목을 기반으로 주제별, 간행연대별, 간행지역

-
- 5) 전주부, 익산군, 김제군, 고부군, 금산군, 진산군, 여산군, 만경현, 임피현, 금구현, 정읍현, 흥덕현, 부안현, 옥구현, 용안현, 함열현, 고산현, 태인현, 나주목, 광주목(연산군 7년에 광산현은 광주목으로 승격), 영암군, 영광군, 함평현, 고창현, 장성현, 진원현, 무장현, 남평현, 무안현, 장흥도호부, 진도군, 강진현, 해남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남원도호부, 담양도호부, 순창군, 용담현, 장평현, 임실현, 무주현, 곡성현, 진안현, 옥과현, 장수현, 순천도호부, 낙안군, 보성군, 능성현, 광양현, 구례현, 홍양현, 동복현, 화순현 등이다.
 - 6) 1785년에 『經國大典』과 『續大典』 및 그 후에 간행된 법령집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
 - 7) 전주부와 나주, 제주, 광주, 능주의 4목, 남원, 장흥, 순천, 담양, 여산, 장성, 무주의 7도호부, 보성, 익산, 고부, 영암, 영광, 진도, 낙안, 순창, 금산, 진산, 김제의 11군, 창평, 용담, 임피, 만경, 금구 등 현령이 다스리는 6현과 광양, 용안, 함열, 부안, 함평, 강진, 옥과, 고산, 태인, 옥구, 남평, 흥덕, 정읍, 고창, 무장, 무안, 구례, 곡성, 운봉, 임실, 장수, 진안, 동복, 화순, 홍양, 해남, 대정, 정의 등 현감이 다스리는 28현으로 변경되었다.
 - 8)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간본 연구』(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 9) 배현숙, “宣祖初 地方 冊板考,”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299-339.
 - 10)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서울: 지식산업사, 2003).

별, 국가별 편저자별 분석을 통해 출판문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 및 범위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까지 전남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이며, 간행본 중 불교서적¹¹⁾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全南地域의 書籍出版

2.1 문헌상의 간행 사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남 지방의 간본은 현존본과 임진왜란 이전에 발간된 문헌에서 간행이 확인되는 책들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 발간된 문헌으로는 『故事撮要册板目錄』과 『朝鮮王朝實錄』, 선조조에 기록된 유희춘의 『眉巖日記』를 대상으로 하였다.

2.1.1 『故事撮要册板目錄』

『故事撮要』는 조선시대에 관리나 재야의 선비에게 아주 긴요한 日用的 類書였다. 1554(명종 9)년 魚叔權의 原撰 이후 1771(영조 47)년 서명응에 의해서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故事新書』로 편찬하기까지 무려 12차에 걸쳐 續撰과 改修가 이루어졌다.¹²⁾ 조선 最古의 책판목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책판목록은 『故事撮要』의 八道程途 안에 수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개수되어 간행되었는데, 본고에서는 1568(선조 1)년 을해자본 『故事撮要』와 1585(선조 18)년 목판본 『故事撮要』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¹³⁾

11) 전라도 지방의 불교서적에 관한 연구는 이미 수행되었으므로,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박민희, “智異山 所在 寺刹의 朝鮮時代 刊行 佛書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참조).

12) 金致雨, “故事撮要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2), 2-16.

13) 선조 9년본 번각본 『故事撮要』가 있으나, 책판목록에서의 변화는 평양, 해주, 밀양의 책판

2.1.1.1 1568(선조 1)년 을해자본 『攷事撮要』에 수록된 全南地域의 간본

17개 지방에 소장된 70종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咸平(1종): 小學
靈光(1종): 瀛奎律髓
玉果(1종): 童蒙須知
潭陽(3종): 大明律直解, 陽村集, 唐音
求禮(1종): 近思錄
光州(15종): 大廣益會, 東坡, 童蒙先習, 笑海叢珠, 元史節要, 烈女傳, 心經
付註, 瘡疹方, 蘇州摘律, 大學, 或問大學, 推句, 喪禮抄集, 文章
歐治, 小學
羅州(18종): 虛白堂集, 活人心方, 文章軌範, 雪菴書, 蒙訓書, 周易, 宋鑑,
浮休子談論, 雅音會編, 大平閑話, 村談解頤, 聯珠詩格, 呂氏鄉
約, 銅人脉簇圖, 東垣十書, 黃山谷集, 雪菴集, 蒙古書
昌平(2종): 經濟六典, 小學
綾城(2종): 孟子, 莊子
南平(3종): 書傳, 三綱行實, 續三綱行實
同福(3종): 蒙書(剏), 黑千字, 元史節要
務安(2종): 棠陰比事, 童蒙須知
靈巖(1종): 禮部韻
寶城(4종): 二倫行實, 春秋, 正俗, 孝經
順天(6종): 三韓龜鑑, 論語大文, 通鑑, 周易大文, 禮記大文, 青松沈氏族譜
光陽(2종): 中庸諺解, 辟瘟方
長興(5종): 湖山集, 禮記淺見錄, 圓鑑集, 論語, 略韻

2.1.1.2 1585(선조 18)년 목판본 『攷事撮要』에 수록된 全南地域의 간본

22개 지방에서 소장한 149종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다. 선조 1년본에 비해 5개 지방이 새롭게 책판을 소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9종의 책판이 증가하였다.

- 咸平(2종): 小學, 抄家禮*¹⁴⁾(漏落, 追刻)

의 증감만이 있고 전라도는 선조 1년본과 같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4) *: 선조 18년본 『攷事撮要』에서 추가된 책판.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 珍原(1종): 靑松沈氏族譜*(漏落, 追刻)
- 谷城(1종): 養生大要*(漏落, 追刻)
- 靈光(1종): 瀛奎律髓
- 玉果(2종): 童蒙須知, 孝經*(漏落, 追刻)
- 潭陽(8종): 大明律直解, 陽村集, 唐晉, 得效方*(漏落, 追刻), 劉貧客集*(漏落, 追刻), 朱子語錄*(漏落, 追刻), 論孟或問*(漏落, 追刻), 農書*(漏落, 追刻)
- 求禮(5종): 近思錄, 蘭亭記*(漏落, 追刻), 戒酒文*(漏落, 追刻), 雙鷄石門*(漏落, 追刻), 草書千字*
- 光州(32종): 大廣益會, 東坡, 童蒙先習, 笑海叢珠, 元史節要, 烈女傳, 心經付註, 瘡疹方, 蘇州摘律, 大學, 或問大學, 推句, 喪禮抄集, 文章歐治, 小學, 名臣言行錄*(漏落, 追刻), 大明律*(漏落, 追刻), 性理群書*(漏落, 追刻), 唐三體詩*(漏落, 追刻), 火炮冊*, 三賢珠玉*, 千字*(漏落, 追刻), 成相國集*(漏落, 追刻), 長吟亭集*(漏落, 追刻), 政經*(漏落, 追刻), 陰附(符)經*(漏落, 追刻), 春種*(漏落, 追刻), 三韻通考*(漏落, 追刻), 陣書*(漏落, 追刻), 養休堂集*(漏落, 追刻), 朱文公問禮*(漏落, 追刻), 朱子實記*(漏落, 追刻)
- 羅州(28종): 虛白堂集, 活人心方, 文章軌範, 雪菴書, 蒙訓書, 周易, 宋鑑, 浮休子談論, 雅音會編, 大平閑話, 村談解頤, 聯珠詩格, 呂氏鄉約, 銅人脉簇圖, 東垣十書, 黃山谷集, 雪菴集, 蒙古書, 儀禮圖*(漏落, 追刻), 李白詩*(漏落, 追刻)
- (鄉校): 禮輯*(漏落, 追刻), 自省錄*(漏落, 追刻), 溪山雜詠*(漏落, 追刻), 孝經*(漏落, 追刻), 錦南集*(漏落, 追刻), 岳飛書*(漏落, 追刻), 月軒集*(漏落, 追刻), 屏風書*(漏落, 追刻)
- 昌平(2종): 經濟六典, 小學
- 綾城(12종): 孟子, 莊子, 集成小學*(漏落, 追刻), 天命道*(漏落, 追刻), 忠信篤敬*(漏落, 追刻), 大字孝悌忠信*(漏落, 追刻), 禮義廉恥*(漏落, 追刻), 學求聖賢*(漏落, 追刻), 忠孝堂*(漏落, 追刻), 禮部韻*(漏落, 追刻), 名醫雜著*(漏落, 追刻), 黃石公*(漏落, 追刻)
- 南平(3종): 書傳, 三綱行實, 續三綱行實
- 同福(3종): 蒙書(剋), 黑千字, 元史節要
- 務安(2종): 棠陰比事, 童蒙須知
- 靈巖(2종): 禮部韻, 企齋集*(漏落, 追刻)
- 寶城(6종): 二倫行實, 春秋, 正俗, 孝經, 千字*(漏落, 追刻), 類合*(漏落, 追刻)
- 順天(24종): 三韓龜鑑, 論語大文, 通鑑, 周易大文, 禮記大文, 靑松沈氏族譜, 程氏遺書*(漏落, 追刻), 居業集*(漏落, 追刻), 延平答問*(漏落, 追刻), 性理遺編*(漏落, 追刻), 童蒙須知*(漏落, 追刻), 諭邑宰文*(漏落, 追刻), 己卯錄*(漏落, 追刻), 陣書*(漏落, 追刻), 聖學十圖*(漏落, 追刻), 阿房賦*(漏落, 追刻), 樂譜*(漏落, 追刻),

呂氏鄉約*(漏落, 追刻), 廉洛風雅詩*(漏落, 追刻), 三韓詩*(漏落, 追刻), 天地造化論*, 景賢錄*(漏落, 追刻), 大學*(漏落, 追刻), 屏風書*(漏落, 追刻)

光陽(2종): 中庸諺解, 辟瘟方

長興(9종): 湖山集, 禮記淺見錄, 圓鑑集, 論語, 略韻, 擊蒙要訣*(漏落, 追刻), 百聯抄解*(漏落, 追刻), 小屏風*(漏落, 追刻), 小屏風(漏落, 追刻)

樂安(1종): 圃隱集*(漏落, 追刻)

海南(1종): 石川集*

濟州(2종): 東國史略(漏落, 追刻), 莞花流水(漏落, 追刻)

2.1.2 「朝鮮王朝實錄」의 기록

1427(세종 9)년에는 전라도 감사에게 「詩」·「春秋」 등을 보내어 이를 출판하게 하였다.¹⁵⁾ 또한 1429(세종 11)년에는 전라도 감사가 새로 새긴 「詩經」과 「禮記」의 冊板을 바치니, 명하여 鑄字所에 내려 보냈다.¹⁶⁾ 「고사촬요」에 수록된 <詩類>는 고부(선조 1년본, 18년본)의 「詩傳」과 부안(선조 1년본, 18년본)의 「詩傳大文」이 있으나, 전남 지방에서 간행된 현존본은 없고, <春秋類>는 「고사촬요」(선조 1년본, 18년본)의 보성조에 「春秋」가 수록되어 있다. <禮類>는 「고사촬요」의 전주(선조 1년본, 18년본)에 「禮記」가 수록되어 있고, 순천에 「禮記大文」이 수록되어 있다.¹⁷⁾

1456(세조 2)년에 「新纂兵要」를 강원도·전라도·경상도에 나누어 보내서 刊板하게 하였다.¹⁸⁾ 광주에서 간행된 「歷代兵要」가 현재 규장각에 소장(奎貴 5070-v.1-10)되어 있으며, ‘景泰七年丙子(1456)二月日全羅道光州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고사촬요」에는 누락되었으나, 실록과 간기로 인해 세조조에 간행사실을 입증한다.

1508(중종 3)년 6월 11일 「大學中庸直解」를 널리 印刊해서 배우는 사람을

15) 「世宗實錄」 38卷, 9年 10月 28日(壬午)條.

16) 「世宗實錄」 43卷, 11年 3月 6日(壬子)條.

17) 그러나 임진왜란 이전에 수록된 간본들이긴 하지만, 정확한 간기가 없이는 세종조에 이러한 간본이 출간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18) 「世祖實錄」 3卷, 2年 2月 2日(辛丑)條.

듬게 하였다.¹⁹⁾ 『고사촬요』(선조 1년본, 18년본)의 광양조에 수록된 『中庸諺解』는 현존본이 없으나, 이후에 간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중종실록』에 의해 간행이 확인되는 『근사록』²⁰⁾은 1518년 구례에서 간행되었다. 구례현감 안처순이 2월에 구례로 내려가기 직전에 “신이 부임하는 고을에는 刊材와 종이와 인출한다면 그 도 사람만 얻어 보게 될 뿐 아니라 널리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근사록』 간행하기를 청하였고, 중종은 7월에 간행하여 반포하라는 명을 내렸다.²¹⁾ 『고사촬요』에 수록되어 있는 구례조의 『근사록』은 이 때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518(중종 13)년에 同知中樞府事 金安國이 풍속을 교화할 서책과 의약에 관한 서책을 개간하여 널리 반포하기를 청하였다.²²⁾ 위의 실록의 기사에서 김안국이 『呂氏鄉約』과 『正俗』, 『辟癘方』을 언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안국은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를 두루 거치면서 지방민의 풍속교화와 전염병 예방에 힘을 기울여 많은 서책을 간행하였다. 따라서 전라도 지방에서 간행된 『여씨향약』, 『정속』, 『벽온방』 등은 중종 13년 이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19) 『中宗實錄』 6卷, 3年 6月 11日(丁丑)條.

20) 『中宗實錄』 32卷, 13年 2月 29日(戊戌)條.

21) 『中宗實錄』 34卷, 13年 7월 26日(癸亥)條.

22) 『中宗實錄』 32卷, 13年 4月 1日(己巳)條. “김안국은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그 도의 인심과 풍속을 보니 퇴폐하기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 옛 사람의 책 중에서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택하여 거기에 언해를 붙여 도내에 반포하여 가르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별도로 撰集廳을 설치하여 文籍을 인출하고 있으니, 이 책들을 다시 교정하여 팔도에 반포하게 하면 風化를 고취시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呂氏鄉約』이나 『正俗』 같은 책은 곧 풍속을 순후하게 하는 책입니다. 『여씨향약』이 비록 『성리대전』에 실려 있으나 註解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곧 그 언해를 상세하게 만들어 사람마다 보는 즉시 이해하게 하고, 『정속』 역시 諺字로 번역하였습니다. … 『이륜행실』은 신이 전에 승지로 있을 때 개간을 청하였습니다. 三綱이 중요함은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도 모두 알거니와, 朋友兄弟의 윤리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신이 『삼강행실도』에 의하여 유별로 뽑아 엮어서 개간하였습니다. 『벽온방』 같은 것은, 온역질은 전염되기 쉽고 사람이 많이들 그로 인해 죽기 때문에, 세종조에서는 생명을 중히 여기고 아끼는 뜻에서 이를 俚語로 번역하여 경향에 印布하였는데, 지금은 회귀해졌기로 신이 또한 언해를 붙여 개간하였습니다. … 바라건대 구급에 간편한 비방을 널리 반포하던 세종조의 전례를 따라 많이 개간하여 널리 반포하소서.’하니, 찬집청에 보내 개간하여 널리 반포하라고 전교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김안국에 의해 『論孟或問』이 비로소 조선에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³⁾ 이에 『고사촬요』(18년본)의 담양조에 수록된 『논맹혹문』은 중종 13년 이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眉巖日記』를 통하여 1574년에 관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전남출판에 관한 기록

실록	일시	내용
세종실록	1427	전라도 감사에게 『詩』·『春秋』 등을 보내어 출판하게 함
세종실록	1429	전라도 감사가 새로 새긴 『詩經』과 『禮記』의 冊板을 바침
세조실록	1456	『新纂兵要』를 강원도·전라도·경상도에 나누어 보내서 刊板하게 함
중종실록	1508	『大學中庸直解』를 널리 印刊해서 배우는 사람을 돕게 함
중종실록	1518	구례현감이 『近思錄』 간행을 청하였고, 중종은 반포하라고 함
중종실록	1518	金安國이 풍속을 교화할 서책과 의약에 관한 서책을 개간하여 반포하기를 청함. 『論孟或問』을 김안국이 처음 조선에 들여 옴

2.1.3 「眉巖日記」

『眉巖日記』는 眉巖 柳希春(1513~1577)가 쓴 10여년간(1567년 10월~1576년 5월)의 일기이다. 그는 이 일기에서 일상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는데,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가정생활, 풍속, 선물문화, 서적의 화매, 필사, 인행 등을 엿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그는 오랜 유배생활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여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복관되어서 홍문관의 副題學, 經筵官, 校書館의 提調

23) 『中宗實錄』 34卷, 13年 11月 22日(戊午)條. 공조판서 김안국이 북경에서 구해 온 서책 『어맹혹문』·『가례의절』·『진도수언』 등을 상진하며, “『語孟或問』은 朱子가 지은 것으로, 『庸學或問』과 동시에 편찬한 것인데, 『용학혹문』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나 이 책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사왔으니, 모름지기 널리 印出하여 홍문관에도 두고 士大夫에게도 나누어 주면 사람들이 『논어』·『맹자』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후에 김안국이 바친 『논맹혹문』 등 제서를 인출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삼일 후에 김안국이 바친 『논맹혹문』 등 제서를 인출하도록 명하였다(『中宗實錄』 34卷, 13年 11月 25日(辛酉)條).

24) 柳希春, 『眉巖日記』 1575年 11月 11日條.

등으로 활동하는 중에 많은 서적을 교정하고 간행하였다. 『미암일기』에는 그가 어떤 책을 누구에게 선물 받고, 어느 관리에게 책의 인쇄를 부탁했는지, 누구에게 책의 필사를 맡겼는지 등 그의 蒐書하는 과정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이 일기를 통해서 10여년 간의 전남 지방의 출판문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배현숙의 연구²⁵⁾를 통해서 광주의 『大明律』과 『性理群書』, 순천의 『周易大文』, 『禮記大文』, 나주의 『錦南集』, 순천의 『瀟灑風雅』, 담양의 『論孟或問』, 능성의 『莊子』, 보성의 『春秋』 등의 판각하한 시기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몇 가지 더 추가하자면, 1568년 장흥부사 趙希文이 새로 인출한 『河西子集』 일곱 권을 보내와서 매우 기쁘다고 하였다.²⁶⁾ 『河西子集』은 金麟厚의 문집인데, 장성에 하서의 본가가 있었고 조희문은 김인후의 제자이면서 사위이다. 『고사촬요』에는 장성조에 『하서집』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하서집』은 1568년 사위 조희문의 주도로 판각이 진행되었고 책판은 장성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1571년 8월에 광양에 이르니, 縣에서 『中庸』 2권을 인쇄하여 보냈다.²⁷⁾ 고사촬요 책판목록의 광양조에는 『中庸諺解』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판각하한은 1571년이 될 것이다.

또한 1573년 미암이 호남을 按廉할 때에 이미 광주에서 『心經』의 뒤에 이황의 後說을 붙여 간행했다²⁸⁾고 하였다. 4년 전인 1569년에 李潑이 李滉의 『心經』을 보내주니 기쁘다²⁹⁾고 하였는데, 1569년에 이황의 『심경』에 대한 주석을 입수한 것이다. 이로써 고사촬요에 수록된 광주조의 『심경부주』는 유희춘에 의해 간행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고 판각의 시기는 1569~1573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576년에는 광주목사 成壽益이 『成相國集』·『三賢珠玉』 각 1책을 보내고 跋文을 부탁하였다.³⁰⁾ 『成相國集』은 麗末鮮初의 문신이었던 성석린의 문집인데

25) 배현숙(2003), 313-315.

26) 柳希春, 『眉巖日記』, 1568年 8月 8日條.

27) 柳希春, 『眉巖日記』, 1571年 8月 22日條.

28) 柳希春, 『眉巖日記』, 1573年 1月 14日條.

29) 柳希春, 『眉巖日記』, 1569年 閏6月 8日條.

30) 柳希春, 『眉巖日記』, 1576年 11月 13日條.

『고사촬요』 광주조에 수록되어 있으나, 현존본이 없어서 그 형태적 특징을 알 수 없다. 현재 『三賢珠玉』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미암일기』를 통해서 위의 2종의 판각의 하한시기가 1576년임을 알 수 있다.

『미암일기』를 통해서 나타난 전남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의 판각의 하한시기를 요약해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미암일기』에 나타난 전남지역 간행서적의 판각하한시기

미암일기 날짜	서명	일기내용	판각 하한
1568. 8. 8	하서자집	장흥부사 조희문이 하서자집을 보내옴	1568
1570. 12. 29	엽락풍아	순천부사가 엽락풍아를 인출해서 보내옴	1570
1571. 4. 27	대명률, 성리군서	1571년 4월에 입수한 광주판 대명률과 성리군서를 담양으로 보냄	1571
1571. 6. 21	장자	장자를 인송하라고 능성에 지시함	1571
1571. 7. 23	춘추	보성에서 춘추를 인출해 보내옴	1571
1571. 8. 31	중용	광양현에서 중용(중용언해)를 보내옴	1571
1571. 9. 25	주역대문의 4종	순천에서 주역대문, 예기대문, 이학유편, 삼한귀감, 경현록을 인출해 보내옴	1571
1571. 10. 15	금남집	금남집 15벌을 인출하여 박순 등에게 주겠다고 함	1571
1573. 8. 22	심경부주	미암이 호남의 안렴사로 있을 때 광주에서 이미 심경에 퇴계의 후설을 붙여 간행했음	1573
1575. 11. 11	논맹혹문	작년에 담양에서 논맹혹문을 개관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함	1574
1576. 11. 13	성상국집, 삼현주옥	광주목사가 성상국집과 삼현주옥을 보내고 발문을 부탁	1576

2.2 현존본의 실태 조사

임진왜란 이전에 全南地域에서 간행된 서적의 현존본 조사는 먼저 선행연구자들의 연구에 소개된 것들을 취합하였다. 여기에는 김치우님의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에 조사된 내용과 천혜봉님의 『日本 蓬左文庫韓國典籍』에 수록된 내용에서 선별하였다. 한편 대학도서관과 주요도서관의 『古書目錄』과 올라

인 「고서목록」을 참조하여 선행의 조사결과에서 누락된 서적들을 보완하였다.³¹⁾

1) 「家禮大全書」(「家禮」)

이 책은 「고사촬요」(선조 18년본) 책판목록의 남원조에 수록된 「家禮」와 같다. 천혜봉의 연구³²⁾에 의하면, ‘嘉靖癸亥(1563)谷城縣開刊 南原府移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1563년에 곡성현에서 개간하여 그 책판을 남원부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³³⁾

2) 「居業錄」(「居業錄要語」)

이 책은 「居業錄要語」라고도 하며, 현재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³⁴⁾되어 있다(OC3A2호13ㄱ). 명나라 胡居仁이 편찬하였으며 子部の 儒家類에 속하는 서적이다. ‘正德丁卯(1507)春三月望日餘干張吉序’라는 서문과 ‘正德己卯(1519)春正月穀旦臨川楊廷用跋’이라는 발문이 있고, ‘甲子(1564)季夏李禎謹識’이 기록되어 있다. 「고사촬요」(선조 18년본)의 순천조에 수록되어 있고, 순천부사로 재임하였던 李禎이 1564년에 쓴 識記가 있어서 1564년 순천부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景賢錄」

李楨이 편찬한 것으로, 이정이 전라도 순천부사로 재임할 당시 갑자사화 때 사사된 金宏弼을 위하여 景賢堂을 건립, 그를 제사하게 하였다. 고려대 소장본(대학원 B12 A13)에는 ‘嘉靖44年(1565)12月日’이라는 초간본의 간기가 있으나,

31) 현존본 조사를 수행하던 중에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논문들에 기재된 간행사실들을 발견하였고, 간행이 입증된 서적들에 관해서는 현재 그 서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존본에 포함시켰다. 또한 현존본에 대한 자세한 해제를 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상 어려움이 있어서, 간기 중심으로 간행연대와 간행의 확인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32) 천혜봉(2003), 68.

33) 봉좌문고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형태적 특징: 4卷1冊: 圖, 四周雙邊, 半郭: 24.5×17.5cm, 有界, 12行 22字, 版心: 上黑口, 內向黑魚尾.

34) 형태사항: 4卷1冊: 四周單邊, 半郭 21.3×16.3cm, 有界, 10行 18字, 版心: 上下大黑口, 內向混合魚尾.

追記: ‘萬曆2年(1574)正月26日觀察使咸陽朴民獻書于昇平府東軒’와 續記: ‘萬曆四十六年(1618) … 李暉光書’가 있어서 초간 이후에 다시 간행한 책이다. 따라서 초간본 『경현록』은 李楨이 순천부사로 재위하면서 간행한 책이라 할 수 있다.³⁵⁾ 또한 『고사촬요』(선조 18년본)의 순천조에 수록되어 있다.

4) 『溪山雜詠』(『退溪雜詠』)

『고사촬요』의 나주향교조에 수록된 서적으로 현재 충남대 도서관에 『退溪雜詠』이라는 서명으로 소장(고서 集詩文評類-韓國人 231)되어 있다. 『溪山雜詠』은 퇴계 선생이 손수 쓴 시 가운데 퇴계 자신이 退溪라는 마을에 살면서 읊은 시만 뽑아 자필로 정리 해둔 책이다.³⁶⁾ ‘萬曆十三年乙酉(1585)錦城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는데 1585년 금성(나주)에서 개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그 당시에 찍은 초간본이 아니라, 이 간기를 그대로 넣어 중간한 후쇄본이라 할 수 있다.

5) 『大平閑話』(『太平閑話滑稽傳』)

『고사촬요』(선조 1년본과 18년본)의 나주조에 수록된 『大平閑話』는 『太平閑話滑稽傳』으로 추정되는데, 이 책은 나주조에만 수록되어 있다. 현재 목판본 『太平閑話滑稽傳』은 고려대에 소장(만송 貴 372)되어 있는데, 이 판본이 초간본이라면, 나주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徐居正(1420~1488)이 편찬하였으며, 고려대 소장본³⁷⁾의 版心題는 『閑話』이다. ‘成化紀元之十八年(1482) … 梁誠之序’라는 序가 있으며, 강희맹이 쓴 ‘龍集壬寅(1482) … 姜希孟景暉書于私淑堂’이라는 滑稽傳敍가 있다. 서문으로 보아 1482년경에 초간본이 간행되었으리

35) 내용은 景賢錄編定別錄總目/ 李滉 著. 寒暄金先生/ 李楨 編. 補錄/ 曹植 追述. 梅溪曹公事實/ 李楨 編. 景賢附錄/ 奇大升 撰이 들어 있다. 고려대 소장본의 형태적 특징: 2卷1冊(52張): 四周單邊, 半郭 21.6×17.2cm, 有界, 11行 21字, 版心: 內向2-3葉花紋魚尾.

36) 충남대 소장본의 형태적 특징: 木板本 2卷1冊: 四周單邊, 半郭 26.0×18.3cm, 有界, 9行 16字, 版心: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表題는 『退陶詩』로 되어 있다.

37) 고려대 소장본의 형태적 특징: 零本1冊: 四周單邊, 半葉 24.3×16.5cm, 有界, 10行 20字, 版心: 內向黑魚尾.

라고 추정한다.

6) 『錦南集』(『금남선생집』)

『고사촬요』(선조 18년본) 나주조에 실린 『금남집』은 유희춘의 외조부인 최부의 문집이다. 전남대 소장본(OC4B1최47ㄱ v.1, 2, 4)에는 ‘隆慶辛未(1571) … 外孫 … 柳希春謹識’이라는 序와 ‘萬曆六年(1578) … 外孫 … 柳希春謹跋’라고 목록이 되어 있는데, 실사한 결과 ‘萬曆六年(1578)’은 ‘萬曆元年(1573)’을 잘못 채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희춘은 1576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1573년이 옳은 것이다. 즉, ‘元’을 ‘六’으로 본 것이다. 권4에 『漂海錄』이 실려 있다.

7) 『己卯錄』

『기묘록』은 『고사촬요』 순천조에 수록되어 있다. 고려대에 현존본이 소장(만송 貴 333)되어 있는데, ‘萬曆十一年(1583) … 順天都護府使申翌敬跋, 重刊于昇平府’라고 되어 있어서, 1583(선조 16)년에 승평부(지금의 순천)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⁸⁾

8) 『農事直說』

이 책은 鄭招(?~1434)³⁹⁾ 등이撰한 것으로 청분실서목과 계명대에 소장되어 있다.⁴⁰⁾ 『청분실서목』⁴¹⁾에는 “昌平縣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사촬요』에는 全州와 茂長에 책판이 있음을 보이고, 창평조에는 수록

38) 고려대 소장본의 형태적 특징: 木板本 1冊: 四周單邊, 半郭 20.8×16.4cm, 有界, 10行 16字, 版心: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39) ?~1434(세종 16). 조선 세종대의 문신. 1405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1407년 증시에 합격하였다. 이조판서·대제학을 지냈다. 세종초의 과학사업에 중요한 소임을 맡아 鄭麟趾·鄭欽之와 함께 大統通軌를 연구, 『七政算內篇』을 편찬하고, 그밖에도 왕명에 의하여 『農事直說』·『會禮文武樂』·『三綱行實圖』 등을 편찬하였다.

40) 계명대 도서관 소장본은 청분실서목에 수록된 간본과 같은 판식을 보이고 있다. 계명대 소장본(1(이)630 정초-)의 형태적 특징: 木板本 1冊(14張): 四周雙邊, 半郭 17.3×13.3cm, 有界, 10行17字, 版心: 黑口, 內向黑魚尾.

41) 이인영, 『淸芬室書目』(서울: 보고사, 1993), 65.

되지 않았다.昌平에서 간행하였다가 책판을 이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9) 「名醫雜著」

「養心堂集」名醫雜著跋에는 명종 6(1551)년 趙晟이 전라도綾城의 수령으로 가는 洪欽仲에게 부탁하여 「名醫雜著」를 널리 간행해주소록 요청하고 있는 경위가 적혀 있다.⁴²⁾ 또한 이문건의 「默齋日記」에서 “능성(수령) 洪欽仲이 사람을 시켜 글로 문안하고 別扇 10개, 回木 10事, 「名醫方」 1卷 등을 보내왔다”⁴³⁾라는 구절에서 1552년에 이미 「名醫雜著」를 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사촬요」책판목록의 능성조에 수록된 「名醫雜著」는 이로 인해 능성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浮休子談論」

천혜봉의 연구에 의해 추정되는 간본으로 일본의 봉좌문고에 소장된⁴⁴⁾ 이 책은 守拙齋 李友閔⁴⁵⁾의 手澤 舊藏本임을 그의 所藏印으로 알 수 있다. 임란 이전 간행본이며, 「고사촬요」책판목록(선조 1년본)에는 전라도 나주에만 수록되어 있어서, 봉좌문고 소장본은 나주에서 간행된 책이라고 추정하였다. 이 책은 成俔(1439~1504)의 저술로, 浮休子는 그의 號이다.

11) 「三韓詩龜鑑」

이 책은 崔瀧(高麗)이 批點하였고 趙云佐(高麗)이 精選하였다.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⁴⁶⁾와 일본국회도서관 上野分館에 소장되어 있다. “嘉靖丙寅(1566)冬順天

42) 「養心堂集」名醫雜著跋(김성수, “16세기 鄉村醫療實態와 士族의 對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01, 27-28에서 재인용).

43) 「默齋日記」1552年 7月 29日條(김성수, 2001, 35에서 재인용).

44) 봉좌문고 소장본의 형태적 특징: 木板本 6卷1冊: 四周雙邊, 半郭 20×15.2cm, 有界, 11行 18字, 版心: 內向三葉花紋魚尾.

45) 1546년(명종 1)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예문관의 검열을 거쳐 홍문관저작·박사·성균관사예·사간원정언, 승정원의 우부승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개성부유수·침지중추부사를 지냈으며, 경상도·황해도·함경도의 관찰사를 거쳐 예조참판에까지 이르렀고 선조7(1574)년에 졸하였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46) 고려대 소장본(만송 貴 363)의 형태적 특징: 木板本 3卷1冊: 四周雙邊, 半郭 23.5×17.6cm,

府重刊”라는 간기가 있어서 1566년에 順天府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12) 『三賢珠玉』

『고사촬요』의 광주조에 수록된 책으로, 宋麟壽, 成悌元, 鄭礪의 詩文을 成壽益이 편집한 것이다. 『眉巖日記』에 광주목사 성수익이 『성삼국집』, 『삼현주옥』을 각1책 보내고 발문을 미암에게 부탁한 기록이 있다.⁴⁷⁾ 규장각에 현존본이 소장(古 3422-44)되어 있다.⁴⁸⁾

13) 『聖學十圖』

유학자 李滉(1501~1570)이 聖學의 개요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으로, 저자가 經筵에 입시하였을 때 宣祖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학의 대강을 강의하고 심법(心法)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성리학자들의 圖說에서 골라 책을 엮고, 각 도식 아래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왕에게 강론하였다. 현재 조선대 도서관에 소장(O/G181.112○954入)⁴⁹⁾하고 있으며, ‘隆慶二年(1568)十二月日’이라는 刊記가 있으며, ‘隆慶四年(1570) 順天開刊.’이라고 간행지가 명시되어 있어서, 1570년에 순천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 『心經附註』

『心經附註』는 임진왜란 이전에 광주에서 적어도 2번 이상 간행되었다.

① 중종 18년 이전 판본

산기문고 소장본⁵⁰⁾의 아래 표지의 안쪽에 ‘右心經附註 湖南光州本 嘉靖2年

有界, 8行 14字, 版心: 上黑口, 下向黑魚尾.

47) 柳希春, 『眉巖日記』 1576年 11月 13日條.

48) 형태적 특징: 木版本 3卷1冊: 四周單邊, 半郭 19.2×16.5cm, 有界, 11行 18字, 版心: 일정하지 않음.

49) 형태적 특징: 木版本 27張: 圖, 四周單邊, 半郭 25.4×20.4cm, 有界, 12行 20字, 版心: 白口, 上下2葉花紋魚尾.

50) 형태적 특징: 木版本 4卷1冊: 四周雙邊, 有界, 10行 23字, 版心: 大黑口, 黑魚尾.

癸未(中宗 18, 1523)春 余遊學時 … 得之’의 墨書識記가 있다. 즉, 1523년 이전에 광주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봉좌문고본은 이 산기문고본과 그 판식이 일치한다.

② 유희춘이 간행을 주도한 판본

이 『心經附註』는 위에서 언급한 책과는 다른 판본이다. 李滉이 1566년 가을에 後論을 지어 권말에 붙인 것을 유희춘이 입수하여, 광주에서 간행을 주도하였다. 앞 장에서 언급한대로, 판각의 시기는 1569~1573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5) 『十九史略通攷』(『古今歷代十九史略通攷』)

『고사촬요』(선조 18년본)의 담양조에는 『十九史略通攷』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서명은 『古今歷代十九史略通攷』의 약칭서명으로 보인다. 김치우의 연구⁵¹⁾에 따르면 현존본이 日本의 成篋堂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嘉靖三十七年戊午(1558)八月日 潭陽府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1558년에 담양부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 『陽村集』(『陽村先生文集』)

『고사촬요』(선조 1년본과 18년본)의 담양조에 수록되어 있으며, 여말선초의 문신 權近의 문집이다. 『청분실서목』⁵²⁾에 殘本 七卷二冊이 있다. 이인영은 세종조의 初刻本으로 추정하고 있다.

17) 『歷代兵要』

『고사촬요』에 누락되었으나, 현존본에 간기가 있어서 전라도 광주에서 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는 서적이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奎貴 5070-v.1-10)⁵³⁾되어 있음

51) 김치우(2007), 350.

52) 이인영(1993), 90. 형태적 특징: 木版本,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版心: 黑口.

53) 형태적 특징: 木版本 10卷10冊(落帙): 四周單邊, 半葉: 20.5×15.4cm, 有界, 9行 17字, 版心: 上下黑魚尾. 版心書名은 『兵要』로 되어 있다.

며, ‘景泰七年丙子(1456)二月日全羅道光州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1456년 2월에 간행되었고, 李石후이 중국의 上古로부터 明나라 초기, 우리나라 朝鮮太祖의 故事 등 兵略에 뛰어난 故事를 모아 엮은 책이다.⁵⁴⁾

18) 『延平問答』(『延平李先生師弟子答問』)

이 책은 『延平李先生師弟子答問』과 동일한 서명이며, 朱熹(宋)가 編撰하고 周木(明)이 校正하였는데, 현재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⁵⁵⁾되어 있다. ‘正德癸酉歲(1513)春正月吉 李習識. 嘉靖三十三年歲次甲寅(1554)秋九月既望 李滉謹跋’이라는 발문과 ‘嘉靖丙寅(1566)春 順天府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順天府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表題는 『延平問答』으로 되어 있는데 『고사촬요』에도 『延平問答』으로 수록되어 있다.

19) 『廉洛風雅詩』

『廉洛風雅詩』는 金履祥(宋)과 唐良瑞(元)이 『毛詩風雅』를 본떠서 엮은 책으로 濂溪의 주돈이, 洛陽의 정호와 정이를 비롯하여 송나라 성리학자 48명의 시를 모았다. 현재 계명대 도서관에 소장((이귀)812.1 김이상여-2)⁵⁶⁾되어 있으며, ‘嘉靖乙丑(1565)春 順天府 開刊’라는 간기가 있어서 1565년에 順天府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 『禮記大文』

『고사촬요』(선조 1년본과 18년본)의 순천조에 수록된 책이다. 계명대 도서관에 현존본⁵⁷⁾이 있는데, 中宗年間에 順天에서 간행된 것으로 목록하고 있다. 김치우는 위의 간본의 판식이 『청분실서목』에 수록된 간본과 동일하다고 밝혔다.⁵⁸⁾

5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해제(<http://e-kyujanggak.snu.ac.kr/>, 2010년 3월 20일 검색).

55) 형태적 특징: 木板本 2卷1冊. 四周單邊, 半郭 18.4×13.3cm, 有界, 9行 16字, 版心: 上下內向花紋魚尾. (淸芬室珍藏의 所藏印이 있음).

56) 형태적 특징: 卷4-7(零本): 四周單邊, 半葉 20.8×15.5cm, 有界, 11行20字, 版心: 內向黑魚尾.

57) 계명대 소장본((귀)180.43진호○-2)의 형태적 특징: 木板本 1冊(零本, 卷4-6): 四周雙邊, 半葉 21.6×14.6cm, 有界, 8行17字, 版心: 大黑口, 下向黑魚尾.

21), 22) 『禮輯(鄉校禮輯)』과 『朱子書節要』의 간행

『禮輯(鄉校禮輯)』 역시 『계산잡영』과 동일한 1585년에 나주에서 간행되었다. ‘萬曆十三年乙酉(1585)錦城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초간본이 雪月堂 宗家에 光山金氏家藏으로 소장되어 있다.⁵⁹⁾

학봉 김성일은 나주목사로 재직하던 중, 1584년 겨울에 월천에게 올린 서한에서, 그 해 가을에 이미 『朱子書節要』를 간행하였고 다시 『儀禮圖』의 판각이 끝나간다고 말하고, 『溪山集』과 轉寫本 『鄉校禮輯』을 보내달라고 청하였다.⁶⁰⁾ 즉 나주의 『朱子書節要』는 1584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 『月軒集』

『고사촬요』의 나주조에 수록되었고 향교에서 간행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月軒集』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었던 丁壽崗(1454~1527)의 문집이다. 계명대 도서관에 현존본⁶¹⁾이 있는데, 1542년에 간행된 것으로 목록하고 있다.

24) 『儀禮圖』

이 책은 『周禮』, 『禮記』와 함께 三禮를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로 公卿士大夫가 지켜야 할 의례와 그 圖解를 수록한 것이다. 『고사촬요』(선조 18년본)의 나주조에 수록되어 있는데, 천혜봉의 연구에 의하면, 이 책은 봉좌문고,⁶²⁾ 산기문고, 성암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다. 『儀禮圖』는 명나라 국자감에서 監生 五士들이 한 저술을 교정하여 1536년에 간행한 것을 우리나라에 들여 와 선조 13년(1580)

58) 김치우(2007), 360.

59) 金彥鍾, “鶴峯先生の 禮學,” 鶴峯 金誠一先生 殉國四百周年紀念論文集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기념사업회, 1993), 196.

60) 沈慶昊, “錦城開刊 『溪山雜詠』과 庚子本 『退溪文集』의 간행경위에 대한 일 고찰,” 『書誌學報』 제19호(1997), 69.

61) 계명대 소장본의 형태적 특징: 木板本 1冊(零本): 四周雙邊, 24.8×17.0cm, 有界, 10行 18字, 版心: 大黑口, 內向黑魚尾.

62) 봉좌문고 소장본의 형태적 특징: 木板本 35卷10冊: 圖, 四周雙邊, 半郭 23.3×16.8cm, 有界, 10行 17字, 版心: 內向三葉花紋魚尾.

에 경진자로 처음 간행하였다. 이 판본은 그것을 복각한 목판본이 전래된 것이다. 봉좌문고본에 ‘萬曆十三年乙酉(1585) … 錦城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1585년에 羅州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⁶³⁾

25) 『程氏遺書分類』(『程氏遺書』)

김치우의 연구⁶⁴⁾에 따르면, 이 책은 현재 옥산서원⁶⁵⁾에 소장되어 있다. ‘嘉靖甲子(1564)春 順天府 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1564년에 순천부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사촬요』의 순천조에 수록된 『程氏遺書』는 이 책을 가리킨다. 『程氏遺書分類』는 李禎이 校正하여 간행하였는데, 이정은 이 당시 순천부사로 재임 중이었다.

26) 『朱子文錄』

『朱子文錄』은 『朱子大全』을 기대승(1527~1572)의 主見에 따라 3권(상, 중, 하)으로 발췌 요약한 것이다. 기대승은 31세에 『주자문록』을 편찬하였다. 『고사촬요』에는 누락되었으나, 나주에서 1557년에 간행되었다. 고봉 기대승은 호남 사림의 대표적인 학자로, 김인후, 유희춘, 송순, 이황, 정지운 등과 증유하였다. 고봉은 이 시기를 전후해서 하서 김인후와 본격적으로 교류했으며 사상 체계의 초기 윤곽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⁶⁶⁾

27) 『朱子增損呂氏鄉約』(『呂氏鄉約』)

이 책은 김치우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는데, “正德十三年戊寅九月日羅州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중종 13(1518)년 나주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사촬요』(선조 1년본, 18년본)의 나주조에 수록된 『呂氏鄉約』은 이 『朱子增損呂氏

63) 천혜봉(2003), 67-68.

64) 김치우(2007), 365.

65) 옥산서원 소장본의 형태적 특징: 6책(零本): 四周單邊, 半郭은 22×16.4cm, 有界, 10行 19字, 版心: 內向魚尾.

66) 남지만, “高峯 奇大升의 性理說 研究”(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2009), 17.

鄉約』과 같은 간본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주희가 여씨 4형제의 『呂氏鄉約』을 補撰하고, 김안국이 諺解한 것이다. 성암고서박물관⁶⁷⁾에 소장되어 있다.

28) 『天命圖』

鄭之雲(1509~1561)이 저술한 이 책은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⁶⁸⁾에 소장(만송 貴 356)되어 있다. ‘萬曆六年(1578)六月日綾城縣開刊’라는 刊記가 있어서 1578년에 綾城縣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9) 『千字文』

조선시대에는 아동들의 교육용으로 『천자문』을 여러 종 간행하였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오래된 간본이 광주에서 간행된 것이다. 김치우⁶⁹⁾와 안미경⁷⁰⁾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이 판본은 현재 일본 동경대학교에 소장⁷¹⁾되어 있으며, 1973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영인하여 보급하였다. ‘萬曆三年(1575)月日 光州 刊上’라는 刊記가 있어서 1575년에 광주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0) 『退陶先生自省錄』(『自省錄』)

여러 곳에 현존본이 소장되어 있는 『자성록』은 『퇴도선생자성록』이라고도 한다. 계명대 소장본(181.153 이황⁷²⁾)은 1冊(76張)이고, 木板本이다.⁷²⁾ ‘萬曆十三年乙酉(1585) … 羅州牧 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1585년에 羅州牧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67) 형태적 특징: 不分卷 1冊, 四周雙邊, 半郭 24×15.8cm, 有界, 9行 18字, 版心: 內向黑魚尾.

68) 만송문고 소장본의 형태적 특징: 木板本 1冊: 圖, 四周雙邊, 半葉 26.9×26.6cm, 有界, 16行 22字, 版心: 內向黑魚尾. 鄭之雲이 저술하였고, 李滉이 刪補하였다. ‘嘉靖癸卯(1543) … 秋巒居士手記于二山之靜軒’라는 序가 있고, ‘嘉靖癸卯(1543) … 淸涼山人謹書’라는 後跋가 있다.

69) 김치우(2007), 368.

70) 안미경, “조선시대 千字文 現傳本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7집(1999), 83-123.

71) 형태적 특징: 木板本 不分卷 1冊, 四周單邊, 半郭 23×18.2cm, 有界, 3行 4字, 版心: 黑口, 內向黑魚尾.

72) 형태적 특징: 四周雙邊, 半郭 22.6×17.9cm, 有界, 10行 18字, 版心: 內向三葉花紋魚尾.

31) 『河西集』

『河西集』은 『고사촬요』의 장성조에 수록되어 있는 河西 金麟厚(1519~1560)의 시문집이다. 김인후⁷³⁾는 장성에 세거한 전라도의 대표적인 유학자이다.

『河西集』은 모두 5차례에 걸쳐 간행된 바 있다. 초간본은 문인 趙希文에 의해 편집되어 간행하였는데, 하서선생 死後 8년만인 1568년이였다. 당시 화재로 인해 선생의 유집 중 일부가 소실되어 급히 선생의 遺稿를 널리 수집하여 간행하였다. 간행에 참여한 이는 백광훈, 송순, 양자징 등 교류하던 벗들과 문인들이 적극 협조하여 간행되었다. 나주목사였던 송순이 板材를 구하였고, 백광훈이 抄書하였다. 그러나 처음에 판각된 책판은 거의 없어지고, 행장 10판이 장성의 필암서원에 남아있다.⁷⁴⁾ 또한 『眉巖日記』에 장흥부사 조희문이 『河西集』을 미암에게 가져다 준 기록⁷⁵⁾이 있다. 이로써 하서집 초간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1568년에 초간본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活人心方』(『活人心』)

『고사촬요』의 나주조에 수록된 『活人心方』은 『新刊京本活人心法』과 동일한 책으로 추정한다. 『新刊京本活人心法』은 현재 중국북경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그 영인본이 마이크로필름(M古-1996-5)으로 소장되어 있다.⁷⁶⁾ 『활인심』의 저자는 명나라초의 인물인 朱權⁷⁷⁾으로, 그는 여러 분야에

73) 김안국에게 배웠고 성균관에 들어가서 李滉과 교우가 두터웠다. 그는 시문에 능하였고 성리학에 깊은 연구가 있어서 기대승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다양한 독서로 천문, 지리, 의학, 율력에 정통했으며, ‘河西體’라는 독특한 서체를 개발하였다.

74) 전남대학교 문헌정보연구소·전라남도, 『全南 書院의 木板』(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75-76. 본집의 형태적 특징은 알 수 없으나, 행장의 형태적 특징: 四周單邊, 半郭 18.5×15cm, 有界, 11行 18字, 版心: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권수에는 ‘隆慶戊辰(1568)文人趙希文謹序’라는 서문이 있다.

75) 柳希春, 『眉巖日記』 戊辰(1568)年 8月 8日條.

76)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2010년 2월 18일 검색),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에서는 『中庸九經弟別集』의 서명아래에 新刊京本活人心法이 들어 있고, 1541년간 목판본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목판본으로 2권1책으로 되어 있으며 관심제는 『心方』이다.

77) 朱權은 도가의 양생사상을 의학에 흡수하여 양생사상, 양생법, 임상처방 등을 심이라는

박통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저술 또는 왕명에 의해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동의보감이 편집(1597)되기 50여년 전에 중국인이 편찬했으나, 조선에서 안炫이 발문하여 간행하였다.⁷⁸⁾ 즉, 당시 전라도 관찰사였던 안현⁷⁹⁾이 간행을 주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3) 『晦菴先生語錄類要』(『朱子語錄』)

이 책은 김치우의 연구에 의해서 간기가 밝혀졌다. 고려대 만송문고본의 裏紙記⁸⁰⁾에 의해서, 1576(선조 9)년 이전에 담양에서 개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朱子의 어록을 수집해서 분류 편성한 책이며, 『고사촬요』 선조 18년본의 담양조에 수록된 『朱子語錄』은 이 책과 동일한 간본으로 추정된다.

34) 『類合』(『新增類合』)

『고사촬요』의 수록 도서 중 『類合』은 茂長, 寶城, 盈德, 晉州에 수록되어 있고, 이들 모두는 선조 18년본 『고사촬요』에 수록되어 있다. 선조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類合』은 柳希春이 增補한 『新增類合』⁸¹⁾을 가리킨다. 미암은 『新增

큰 범주에서 체계화시켰다. 이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치료로 보았다(은석민, “『活人心』의 의학사상 연구 - 『新刊京本活人心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2001), 2-5).

78) 한국고전전적종합목록시스템 해제(<http://www.nl.go.kr/korcis/>, 2010년 2월 18일 검색).

79) 안현(1501~1560)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1540년에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中宗實錄』, 中宗 35年 4月 10日(辛未)條). 1541년 병조 참의가 되어 한양으로 올라 갈 때까지 전라도 관찰사로 일 할 때에 이 책을 간행하였을 것이다. 1540(중종 35)년 7월에 전라도의 각 지역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죽는 자가 많아 예조에서 약재를 보내 구할하라는 임금의 진교가 있었던(『中宗實錄』, 中宗 35年 7月 6日(乙未)條) 기록으로 보아 평소 의학에 관심이 많던 관찰사가 이 책을 간행하여 백성들을 구할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0) “本在湖南之潭陽 萬曆四年丙子(1576) 崔見叔(全羅監司)令公 爲監司時借印(판본이 담양에 있었는데 만력4년에 최영공이 감사가 되었을 때 빌려서 인쇄했다)”(김치우, 2007, 373에서 인용).

81) 미암은 동궁이 배우는 구본 『類合』에 요긴한 글자가 많이 빠지고 불교를 숭상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증보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배현숙, “續蒙求分註 版本考,” 『書誌學研究』 26집(2003), 141).

類合』을 수정·증보하는 내용을 1573년 12월부터 『미암일기』에 기록되기 시작하여 1576년 10월에 마지막 진상함으로써 30여년에 걸친 긴 작업이 끝났음을 적고 있다.⁸²⁾ 고려대에 ‘序: 萬曆四年(1576)三月丙午 … 柳希春謹序’라는 序가 있는 『新增類合』을 소장(대학원 貴 215)⁸³⁾하고 있다.

이상으로 현존본과 간행시기나 간행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서적들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현존본의 간기들에서 보이는 ‘곡성현’, ‘승평부’, ‘나주목’, ‘순천도호부’, ‘창평현’, ‘담양부’, ‘능성현’ 등으로 보아 임진왜란 이전의 서적들은 거의 대부분이 관판본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안국, 안현, 유희춘, 이정, 김성일, 홍흡중 등이 간행의 주관자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全南地域의 관찰사, 목사, 현감 등으로 부임해서 책의 간행을 주도하였다. 이는 지방관의 간행의도가 출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全南地域 간행본의 書目

현존본과 문헌상에 나타난 간행기록을 종합하여 임진왜란 이전에 전남지역에서 간행한 서적들의 書目を <표 1>과 같이 작성하였다(*촬: 고사촬요, 미암: 미암일기).

<표 3> 임진왜란 이전 全南地域 간행본의 書目

서명	편·저자명	수록문헌*	간행시기	간행지역	주제분류
家禮大全書	朱熹(宋)	누락	1563	谷城	經部 禮類
抄家禮		촬(18)	宣祖朝	咸平	經部 禮類
居業錄(居業錄要語)	胡居仁(明)	촬(18)	1564 跋	順天	子部 儒家類
擊蒙要訣	李珣	촬(18)	1577 序	長興	子部 儒家類

82) 柳希春, 『眉巖日記』, 1576年 10月 8日條.

83) 형태적 특징: 1冊: 四周單邊, 半郭 24.4×19.0cm, 有界, 4行 4字, 版心: 上下黑口, 內向黑-2 葉花紋魚尾. 정확히 어느 고장에서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방에서 간행된 『類合』은 이 판본과 흡사하거나 변각본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서명	편·저자명	수록문헌*	간행시기	간행지역	주제분류
經濟六典	趙俊, 河崙 等	촬(1, 18)		昌平	史部 政治類
景賢錄	李禎	촬(18) 미암	1565	順天	史部 傳記類
溪山雜詠	李滉	촬(18)	1585	羅州鄉校	集部 別集類
戒酒文	李荇	촬(18)	宣祖朝	求禮	子部 醫家類
近思錄	朱熹, 呂祖謙(宋)	촬(1, 18) 실록	1518	求禮	子部 儒家類
錦南集	崔溥	촬(18) 미암	1573 跋	羅州鄉校	集部 別集類
己卯錄	申翌	촬(18)	1583	順天	史部 雜史類
企齋集	申光漢	촬(18)	宣祖朝	靈巖	集部 別集類
蘭亭記	王羲之(晉)	촬(18)	宣祖朝	求禮	子部 藝術類
論孟或問	朱熹(宋)	촬(18)	1574 板刻	潭陽	經部 四書類
論語		촬(1, 18)		長興	"
論語大文		촬(1, 18)		順天	"
農事直說	鄭招 등	누락	宣祖朝	昌平	子部 農家類
農書		촬(18)	宣祖朝	潭陽	"
唐三體詩(箋註唐賢絕句三體詩法)	周弼(宋)	촬(18)	宣祖朝	光州	集部 總集類
唐音	陽士弘(元)	촬(1, 18)		潭陽	"
棠陰比事	桂萬榮(宋)	촬(1, 18)		務安	子部 儒家類
大廣益會(大廣益會玉篇)	顧野王(梁)	촬(1, 18) 미암	1572 下限	光州	經部 小學類
大明律	劉惟謙(明) 等	촬(18) 미암	1571 下限	光州	史部 政法類
大明講解律(大明律講解)	劉惟謙(明) 等, 趙俊 等解	촬(1, 18)		潭陽	"
大字孝悌忠信	李彥廻	촬(18)	宣祖朝	綾城	子部 藝術類
太平閑話(太平閑話滑稽傳)	徐居正	촬(1, 18)	1482 序	羅州	子部 隨錄類
大學		촬(1, 18)		光州	經部 四書類
大學		촬(18)	宣祖朝	順天	"
或問大學	朱熹(宋)	촬(1, 18)	宣祖朝 ⁸⁴⁾	光州	"
童蒙先習	朴世茂	촬(1, 18) 미암	1571 인출	光州	經部 小學類
童蒙須知	朱熹(宋)	촬(1, 18)		玉果	子部 儒家類
童蒙須知	"	촬(1, 18)		務安	"
童蒙須知	"	촬(18)	宣祖朝	順天	"
東垣十書	光澤王(明)	촬(1, 18)		羅州	子部 醫家類
銅人脉簇圖(銅人經)	王惟一(宋)	촬(1, 18)		羅州	子部 醫家類
東坡	蘇軾(宋)	촬(1, 18)		光州	集部 別集類
得效方(世醫得效方)	危亦林(元)	촬(18)	宣祖朝	潭陽	子部 醫家類
孟子	孟軻 (春秋戰國, 趙)	촬(1, 18)		綾城	經部 四書類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서명	편·저자명	수록문헌*	간행시기	간행지역	주제분류
名臣言行錄(宋名臣言行錄)	朱熹(宋)	촬(18)	宣祖朝	光州	史部 傳記類
名醫雜著	王編(明)	촬(18)	1552	綾城	子部 醫家類
蒙書		촬(1, 18)		同福	經部 小學類
蒙訓書		촬(1, 18)		羅州	子部 儒家類
蒙古書		촬(1, 18)		羅州	子部 譯家類
文章歐治		촬(1, 18)		光州	集部 總集類
文章軌範	謝枋得(宋)	촬(1, 18)		羅州	"
百聯抄解		촬(18)		長興	集部 總集類
辟瘟方	金順蒙 等	촬(1, 18)	中宗-宣祖	光陽	子部 醫家類
屏風書		촬(18)	宣祖朝	順天	子部 藝術類
屏風書		촬(18)	宣祖朝	羅州鄉校	"
小屏風		촬(18)	宣祖朝	長興	"
浮休子談論	成倪	촬(1, 18)	明宗朝	羅州	子部 儒家類
三綱行實	復循 等	촬(1, 18)	中宗-宣祖	南平	史部 傳記類
三韻通考	世宗 命編	촬(18)	宣祖朝	光州	經部 小學類
三韓龜鑑(三韓詩龜鑑)	趙云伋(高麗)	촬(1, 18)	1566	順天	集部 總集類
三韓詩(三韓詩龜鑑)	"	촬(18)	宣祖朝	順天	集部 總集類
三賢珠玉	鄭疇 等	촬(18) 미암	1576년 발문부탁	光州	集部 總集類
喪禮抄集		촬(1, 18)		光州	經部 禮類
書傳		촬(1, 18) 미암	1572 下限	南平	經部 書類
石川集	林億齡	촬(18)	宣祖朝	海南	集部 別集類
雪菴書(雪菴書帖)	李溥光(元)	촬(1, 18)		羅州	子部 藝術類
雪菴集		촬(1, 18)		羅州	集部 別集類
性理群書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態節(宋)	촬(18) 미암	1571 下限	光州	子部 儒家類
性理大全暑節要		누락	1538	羅州	子部 儒家類
性理遺編(理學遺編)	李楨	촬(18) 미암	1564跋	順天	子部 儒家類
成相國集	成石璘	촬(18) 미암	1576년 발문부탁	光州	集部 別集類
聖學十圖	李滉	촬(18)	1570	順天	子部 儒家類
聖學十圖	"	누락	1585	羅州	"
蘇州摘律		촬(1, 18)		光州	集部 別集類
小學	朱熹(宋)	촬(1, 18)		光州	子部 儒家類
小學	"	촬(1, 18)		昌平	"
集成小學 (諸儒標題註疎小學集成)		촬(18)	宣祖朝	綾城	"
笑海叢珠	陸龜蒙(唐)	촬(1, 18)		光州	子部 小說家類

서명	편·저자명	수록문헌*	간행시기	간행지역	주제분류
續三綱行實	申用溉 等	촬(1, 18)	中宗-宣祖	南平	史部 傳記類
宋鑑(宋鑑疎論)		촬(1, 18)		羅州	史部 編年類
心經付註	眞德秀(宋) 程敏政(元) 註	촬(1, 18)	1523 이전	光州	子部 儒家類
心經付註	眞德秀(宋) 程敏政(元) 註 李滉 後論	미암	1573 下限	光州	子部 儒家類
十九史略 (古今歷代十九史略通考)	曾先之(元)	촬(18)	1558	潭陽	史部 別史類
雙鷄石門	崔致遠(新羅)	촬(18)	宣祖朝	求禮	子部 藝術類
阿房賦(阿房宮賦)	杜牧(唐)	촬(18)	宣祖朝	順天	集部 詞曲類
雅音會編	康麟(明)	촬(1, 18)	燕山君朝	羅州	經部 小學類
樂譜		촬(18)	宣祖朝	順天	集部 詞曲類
岳飛書	岳飛(宋)	촬(18)	宣祖朝	羅州鄉校	子部 藝術類
略韻		촬(1, 18)		長興	經部 小學類
養生大要		촬(18)	宣祖朝	谷城	子部 醫家類
陽村集	權近	촬(1, 18)	世宗朝	潭陽	集部 別集類
養休堂集	盧禎	촬(18)	宣祖朝	光州	集部 別集類
呂氏鄉約 (朱子增損呂氏鄉約)	朱熹(宋) 編. 金安國 諺解	촬(18)	宣祖朝	順天	子部 儒家類
呂氏鄉約	"	촬(1, 18)	1518	羅州	"
歷代兵要	李石亨 等	실록	1456	光州	子部 兵家類
聯珠詩格 (精選唐宋千家聯珠詩格增註)	于濟(元) 等	촬(1, 18)		羅州	集部 總集類
延平答問(延平答問補錄)	朱熹(宋)	촬(18)	1566	順天	子部 儒家類
烈女傳		촬(1, 18)		光州	史部 傳記類
濂洛風雅詩(濂洛風雅)	金履祥(宋)	촬(18) 미암	1565	順天	集部 總集類
瀛奎律髓	方回(元)	촬(1, 18)	成宗朝	靈光	集部 總集類
禮記大文		촬(1, 18) 미암	1571 下限	順天	經部 禮類
禮記淺見錄	權近	촬(1, 18)		長興	經部 禮類
禮部韻(排字禮部韻略)	丁度(宋)	촬(1, 18)		靈巖	經部 小學類
禮部韻	"	촬(18)	宣祖朝	綾城	"
禮義廉恥		촬(18)	宣祖朝	綾城	子部 藝術類
禮輯(鄉校禮輯)	屠羲英(明)	촬(18)	1585	羅州鄉校	經部 禮類
圓鑑集	沖止(高麗)	촬(1, 18)		長興	集部 別集類
元史節要	張美和(明)	촬(1, 18)		光州	史部 正史類
元史節要		촬(1, 18)		同福	"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서명	편·저자명	수록문헌*	간행시기	간행지역	주제분류
月軒集	丁壽岡 著	촬(18)	1542	羅州鄉校	集部 別集類
劉貧客集	劉禹錫(唐)	촬(18)	宣祖朝	潭陽	集部 別集類
諭邑宰文		촬(18)	宣祖朝	順天	史部 政書類
類合(新增類合)	柳希春 增補	촬(18)	1576 이후	寶城	經部 小學類
陰附(符)經		촬(18)	宣祖朝	光州	子部 道家類
儀禮圖	楊復(宋)	촬(18)	1585	羅州	經部 禮類
二倫行實	金安國	촬(1, 18)	中宗-宣祖	寶城	史部 傳記類
李白詩(分類補註李太白詩)	李白(唐)	촬(18)	宣祖朝	羅州	集部 別集類
自省錄(退陶先生自省錄)	李滉	촬(18)	1585	羅州鄉校	子部 儒家類
長吟亭集	羅滉	촬(18)	宣祖朝	光州	集部 別集類
莊子	莊周 (春秋戰國, 宋)	촬(1, 18) 미암	1571 下限	綾城	子部 道家類
政經	眞德秀(宋)	촬(18)	宣祖朝	光州	子部 儒家類
正俗	王逸庵(元) 金安國 諺解	촬(1, 18)	中宗-宣祖	寶城	子部 儒家類
程氏遺書(程氏遺書分類)	李楨	촬(18)	1564	順天	子部 儒家類
朱文公問禮		촬(18)	宣祖朝	光州	經部 禮類
周易		촬(1, 18)	成宗-中宗	羅州	經部 易類
周易大文		촬(1, 18) 미암	1571 下限	順天	"
朱子文錄	奇大升	누락	1557 跋文	羅州	子部 儒家類
朱子書節要	李滉	누락	1584	羅州	子部 儒家類
朱子實記	載銑(明)	촬(18)	宣祖朝	光州	史部 傳記類
朱子語錄(晦菴先生語錄)	朱熹(宋)	촬(18)	1576	潭陽	子部 儒家類
中庸諺解		촬(1, 18)		光陽	經部 四書類
陣書	房玄齡(唐) 等	촬(18)	宣祖朝	順天	子部 兵家類
陣書		촬(18)	宣祖朝	光州	"
瘡疹方	任元濬	촬(1, 18)	中宗-宣祖	光州	子部 醫家類
天命圖(天命圖說)	鄭之雲	촬(18)	1578	綾城	子部 儒家類
千字	周興嗣(梁)	촬(18)	1575	光州	經部 小學類
千字	"	촬(18)	宣祖朝	寶城	"
千字	"	촬(18)	宣祖朝	長興	"
天地造化論(天地萬物造化論)	王栢(宋)	촬(18)	宣祖朝	順天	分類未詳
青松沈氏族譜		촬(1, 18)		順天	史部 傳記類
青松沈氏族譜		촬(18)	宣祖朝	珍原	"
草書千字	周興嗣(梁)	촬(18)	宣祖朝	求禮	經部 小學類

서명	편·저자명	수록문헌*	간행시기	간행지역	주제분류
村談解頤	姜希孟	촬(1, 18)		羅州	子部 隨錄類
推句		촬(1, 18)		光州	集部 總集類
春種(雪菴春種)	李溥光(元)	촬(18)	宣祖朝	光州	子部 藝術類
春秋	孔丘 (春秋戰國, 魯)	촬(1, 18) 미암	1571 下限	寶城	經部 春秋類
忠信篤敬		촬(18)	宣祖朝	綾城	子部 藝術類
忠孝堂	金協	촬(18)	宣祖朝	綾城	集部 別集類
通鑑		촬(1, 18)		順天	史部 編年類
圃隱集	鄭夢周(高麗)	촬(18)	宣祖朝	樂安	集部 別集類
河西集	金麟厚	촬(18)	1568	長城	集部 別集類
學求聖賢		촬(18)	宣祖朝	綾城	子部 儒家類
虛白堂集	成俔	촬(1, 18)	中宗-宣祖	羅州	集部 別集類
湖山集	吳芾(宋)	촬(1, 18)		長興	集部 別集類
火炮冊		촬(18)	宣祖朝	光州	子部 兵家類
活人心方(新刊京本活人心法)	朱權(明)	촬(1, 18)	1541	羅州	子部 醫家類
黃山谷集(山谷詩集註)	黃庭堅(宋)	촬(1, 18)		羅州	集部 別集類
黃石公(黃石公素書)	張商英(宋)	촬(18)	宣祖朝	綾城	子部 兵家類
孝經		촬(1, 18)		寶城	經部 孝經類
孝經		촬(18)	宣祖朝	玉果	"
孝經		촬(18)	宣祖朝	羅州鄉校	"
黑千字	周興嗣(梁)	촬(1, 18)		同福	經部 小學類

3. 全南地域의 출판양상

<표 3>에서 작성된 書目을 토대로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의 전남지역의 출판문화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시기별로 간행된 서적을 분석하였고, 4部分類를 통해 주제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전남지역에 속한 세부지역별 분석과 간행서적들의 편저자를 살펴봄으로써 중국본과 조선본을 비교분석 하였다.

84) 이인영(1993), 142.

3.1 시기별 분석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104종(전체 156종)에 대해 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임진왜란 이전 全南地域 간행본의 시기별 분석

王名	書名(刊行處)	種
世宗	양촌집(담양)	1
世祖	역대병요(광주)	1
成宗	영규율수(영광)	1
燕山君	아음회편(나주)	1
中宗	근사록(구례) 성리대전서절요(나주) 활인심방(나주) 여씨향약(나주) 월현집(나주)	5
明宗	명의잡저(능성) 삼한귀감(순천) 십구사략(담양) 연평문답(순천) 엽락풍아시(순천) 정씨유서(순천) 거업록(순천) 경현록(순천) 성리유편(순천) 주자문록(나주) 가례대전서(곡성) 부휴자담론(나주)	12
宣祖	계산잡영(나주) 금남집(나주) 기묘록(순천) 논맹혹문(담양) 농사직설(창평) 성학십도(순천/나주) 심경부주(광주) 예집(나주) 자서록(나주) 주자서절요(나주) 주자어록(담양) 천명도(능성) 천자(광주) 하서집(장성) 격몽요결(장흥) 대명률(광주) 삼현주옥(광주) 성리군서(광주) 성상국집(광주) 의례도(나주) 類合(보성)	22
成宗-中宗	주역(나주)	1
中宗-宣祖	이륜행실(보성) 삼강행실(남평) 속삼강행실(남평) 정속(보성) 허백당집(나주) 심경부주(광주) 벽은방(광양) 창진방(광주)	8
宣祖年間	선조 18년본 『고사촬요』 책판목록에 추가로 수록된 책판	52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전남 지방에서 서적을 간행한 시기는 세종조부터 나타나지만, 명종 이후부터 서적의 간행이 활발해짐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간행된 추이를 살펴보면, 세종조부터 연산군까지는 4종(3.92%)으로 미미하다가, 중종조 4종(3.92%), 명종조 11종(10.78%), 선조조 22종(21.56%), 중종 이후부터 선조조 사이에 간행된 추정본은 60(58.82%)종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종조 이후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대다수의 서적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자료와 조사가 더 진행되어 모든 서적의 간행시기가 추적된다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2 주제별 분석

임진왜란 이전에 全南地域에서 간행한 서적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표 5>로 나타내었다.

<표 5> 임진왜란 이전 全南地域 간행본의 주제별 분석

분류	소분류	서명	종
經 (37종)	四書類	논맹혹문 논어 논어대문 대학(2) 혹문대학 맹자 중용언해	8
	書類	서전	1
	小學類	대광익회 동몽선습 몽서 삼운통고 아음회편 약운 예부운(2) 類書 천자(3) 혹천자 초서천자	14
	易類	주역 주역대문	2
	禮類	가례대전서 초가례 상례초집 예기대문 예기천건록 예집 의례도 주문공문례	8
	春秋類	춘추	1
	孝經類	효경(3)	3
史 (19종)	別史類	십구사략	1
	雜史類	기묘록	1
	傳記類	경현록 명신언행록 삼강행실 속삼강행실 열녀전 이륜행실 주자실기 청송심씨족보(2)	9
	政法類	대명률 대명강해율	2
	正史類	원사절요(2)	2
	政書類	유읍재문	1
	政治類	경제육전	1
	編年類	통감 송감	2
子 (64종)	農家類	농사직설 농서	2
	道家類	음부경 장자	2
	兵家類	역대병요 진서(2) 화포책 황석공	5
	小說家類	소해충주	1
	隨錄類	대평한화 촌담해이	2
	譯家類	몽고서	1
	藝術類	난정기 대자효제충신 병풍서(2) 소병풍 설암서 쌍계석문 악비서 예의염치 춘중 충신독경	11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분류	소분류	서명	종
子 (64종)	儒家類	거업록 격몽요결 근사록 당음비사 동몽수지(3) 몽훈서 부휴자담론 성리대전시절요 성리군서 성리유편 성학십도(2) 소학(2) 집성소학 심경부주(2) 여씨향약(2) 연평문답 자성록 정경 정숙 정씨유서 주자문록 주자시절요 주자어록 천명도 학구성현	31
	醫家類	계주문 동원심서 동인백족도 득효방 명의잡저 벽온방 양생대요 창진방 활인심방	9
集 (35종)	別集類	계산잡영 금남집 기재집 석천집 실암집 성상국집 소주적율 양촌집 양휴당집 원감집 월헌집 유빈객집 이백시 장음정집 충효당 포은집 허서집 허백당집 호산집 황산곡집 등과	21
	詞曲類	아방부 악보	2
	總集類	당삼제시 당음 문장구치 문장케법 백련초해 삼한귀감 삼한시 삼현주옥 연주시격 열락풍아시 영규율수 추구	12

주제 분류가 가능한 경우에 속하는 책은 37종, 사부에 속하는 책은 19종, 자부에 속하는 책은 64종, 집부에 속하는 책은 35종이 있다. 이 중 유가류는 31종으로 가장 많이 간행되었고, 그 다음으로 별집류 21종, 소학류 14종, 총집류 12종, 예술류 11종, 전기류 9종, 의가류 9종, 사서류와 예류 8종, 병가류 5종순이다. 문학관련 서적(별집류와 총집류)과 성리학과 관련된 서적(경부와 유가류)이 많이 간행되어 조선 전기의 서적 간행의 흐름을 보여 준다. 또한 예와 효, 바른 행실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그와 관련된 서적(예류, 전기류, 효경류)도 많이 간행되었고 소학류의 간행빈도는 교육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였으며, 예술류의 간행도 그 당시 세인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자부 중 의가류 9종과 병가류 5종이 간행되었는데 나주에서 의가류 3종이 간행되었고, 광주에서 병가류 3종이 간행되었다. 상대적으로 사부의 책들은 전기류를 제외하고는 극히 미미하게 간행되어서 임진왜란 이전의 사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동몽수지』와 『효경』은 세 곳에서 간행되어 가장 수요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經部의 詩類, 史部의 金石類, 詔令奏議類, 地理類, 子部의 釋迦類 및 術數類에 속하는 서적은 간행되지 않았다.

3.3 지역별 분석

임진왜란 이전에 全南地域에서 간행한 서적을 지역별로 정리하여 <표 6>으로 나타내었다.

<표 6> 임진왜란 이전 全南地域 간행본의 지역별 분석

지역	종	분류			
		經	史	子	集
谷城	2	가례대전서		양생대요	
光陽	2	중용언해		벽은방	
光州	33	대광의회 대학 혹문대학 동몽선습 삼운통고 상례초집 정경 주문공문례 천자	대명률 열녀전 원사절요 주자실기	성리군서 소학 소해총주 심경부주(2) 역대병요 음부경 진서 창진방 훈중 화포책	당삼체시 동파 문장구치 삼현주옥 성삼국집 소주적을 양휴당집 장음정집 추구
求禮	5	초서천자		계주문 근사록 난정기 쌍계석문	
羅州	31	아음회편 예집 의례도 주역 효경	송감	대평한화 동원십서 동인맥족도 몽훈서 몽고서 병풍서 부휴자담론 설암서 성리대전서절요 성학십도 악비서 여씨향약 자성록 주자문록 주자서절요 촌담해이 활인심방	계산잡영 금남집 문장계법 설암집 연주시격 월헌집 이백시 허백당집 황산곡집
樂安	1				포은집
南平	3	서전	삼강행실 속삼강행실		
綾城	11	맹자 예부운		대자효계충신 집성소학 예의염치 장자 천명도 충신독경 학구성현 황석공	충효당
潭陽	9	논맹혹문	대명강해울 십구사략	농서 득효방 주자어록	당음 양촌집 유빈객집
同福	3	몽서 혹천자	원사절요		
務安	2			당음비사 동몽수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지역	종	분류			
		經	史	子	集
寶城	6	類合 천자 춘추 효경	이륜행실	정속	
順天	23	논어대문 대학 예기대문 주역대문	경현록 기묘록 유읍재문 청송심씨족보 통감	거업록 병풍서 성리유편 성학십도 여씨향약 연평담문 정씨유서 진서 동몽수지	삼한귀감 삼한시 아방부 약보 염락풍아시
靈光	1				영규율수
靈巖	2	예부운			기재집
玉果	2	효경		동몽수지	
長城	1				하서집
長興	9	논어 약운 예기천권록 천자		격몽요결 소병풍	백련초해 원감집 호산집
珍原	1		청송심씨족보		
昌平	3		경제육전	농사직설 소학	
咸平	1	초가례			
海南	1				석천집

<표 6>에서 보면 서적간행에 있어서 광주, 나주, 순천, 능성, 담양, 장흥, 보성 순으로 간행이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광주, 나주, 순천 등이 행정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광주, 나주, 순천, 보성, 장흥에서는 경부의 서적을 많이 간행하였고, 순천과 광주에서는 사부의 서적이 많이 간행되었다. 나주, 광주, 능성, 순천에서는 자부의 서적이 많이 간행되었고, 광주, 나주, 순천에서는 집부의 서적이 많이 간행되었다. 특히 나주에서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문집(계산잡영, 금남집, 허백당집, 월헌집)이 많이 간행되었다. 광주에서는 병서(진서, 역대병요, 화포책)를 많이 간행하였다.

현존본의 간기들에서 보이는 ‘곡성현’, ‘승평부’, ‘나주목’, ‘순천도호부’, ‘창평현’, ‘담양부’, ‘능성현’ 등으로 보아 임진왜란 이전의 서적들은 거의 대부분이 관판본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주 향교에서 간행된 『계산잡영』, 『성학십도』, 『주자서절요』, 『자성록』, 『의례도』의 간행시기는 ‘萬曆三十年乙酉’ 즉 1585년이다. 이 때 나주목사는 鶴峯 金誠一이었다. 그는 퇴계의 문하생으로 생전에 퇴계

의 시문저술을 간행하는데 정성을 쏟았다. 나주목사로 재임할 때에 퇴계의 『계산잡영』, 『성학십도』, 『예집』, 『주자서절요』, 『자성록』, 『의례도』를 간행하였다. 『고사촬요』에는 『주자서절요』가 누락되어 있다. 학봉의 『연보』에 의하면, 1583(선조 16)년 7월에 羅州牧使兼春秋館編修官에 特陰되고 8월에 임지로 부임하였다. 1585(선조 18)년 7월에 휴가를 받아 환향하였다가 8월에 임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퇴계의 『성학십도』를 출간하고, 또 『계산잡영』을 출간하였다. 학봉은 퇴계의 여러 글을 후학들이 볼 수 있도록 간행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예집(향교예집)』, 『주자서절요』, 『자성록』, 『의례도』 등의 책도 출간하였다.⁸⁵⁾

순천부에서 간행된 『경현록』, 『연평이선생사제자답문』, 『염락풍아시』, 『정씨유서분류』, 『성리유편』, 『거업록』 등은 그 당시 순천부사였던 李禎의 주도하에서 순천부에서 간행되었다. 이정은 『경현록』, 『성리유편』, 『정씨유서분류』 등을 직접 저술하였다.

3.4 국가별 편저자 분석

임진왜란 이전에 全南地域에서 간행한 서적 중 편저자가 확실한 112종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표 7>로 나타내었다.

편저자는 중국과 우리나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편저자는 48종이고 중국의 편저자는 64종으로 나타나 중국에서 전래된 책이 조금 더 많이 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편저자를 왕조별로 구분하면, 신라 1종, 고려 3종, 조선 44종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서적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별집류가 12종으로 주요부분을 차지했다. 별집류의 서적은 정몽주, 권근, 이황, 최부, 김인후, 임억령 등 당대에 존경받는 유학자들의 문집이 대다수이다. 특기할 만한 저자는 李禎, 金安國, 李滉인데, 이정은 『경현록』, 『성리유편』 등을 저술하였으며, 김안국은 『이륜행실』을 저술하였고 『여씨향약』과 『정속』을 언해하여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는데 힘썼다. 또한

85) 沈慶昊, “錦城開刊『溪山雜詠』과 庚子本『退溪文集』의 간행경위에 대한 일 고찰,” 『書誌學報』, 제19호(1997), 67-71.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이황의 저서인 『계산잡영』, 『성학십도』, 『주자서절요』, 『자성록』 등 4종이 나누어서 간행되었다.

<표 7> 임진왜란 이전 全南地域 간행본의 편저자 분석

國內		國外	
新羅	1	春秋戰國	3
高麗	3	晉	1
朝鮮	44	梁	1
		唐	6
		宋	26
		明	9
		元	8
		其他	10
計	48	計	64

중국의 편저자를 왕조별로 구분하면, 춘추전국시대(魯, 宋, 趙) 3종, 진나라 1종, 양나라 1종, 당나라 6종, 송나라 26종, 명나라 9종, 원나라 8종이고, 기타는 10종이다. 송대의 편저자가 가장 많은 종수를 보이는데, 이는 朱熹가 편찬하거나 저술한 책이 10종(주자어록, 근사록, 논맹혹문, 당음비사, 동몽수지, 혹문대학, 여씨향약, 연평문답, 명신언행록, 소학)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 사회에서 주희의 성리학이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별집류와 총집류에 속하는 서적 중 당·송의 시문집이 8종(당삼체시, 동파, 문장귀범, 이백시, 호산집, 황산곡집)이 들어 있어서 그 당시의 선비들의 문학적 취향을 알 수 있다. 기타 10종(논어, 논어대문, 대학, 효경, 주역, 주역대문, 상례초집, 서전, 예기대문, 주문공문례)은 중국에서 전래된 유교의 경전이 대부분이나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책들이다.

4. 結 論

이상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전남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을 중심으로 주제별, 간행 지역별, 시기별, 편저자별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1) 全南地域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에 156종의 서적을 간행하였고, 명종조 이후부터 서적의 간행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현존본의 간기들에서 나타나는 ‘곡성현’, ‘승평부’, ‘나주목’, ‘순천도호부’, ‘창평현’, ‘담양부’, ‘능성현’ 등으로 보아 임진왜란 이전의 서적들은 거의 대부분이 관판본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서적을 간행한 지역을 살펴보면, 광주, 나주, 순천, 능성, 담양, 장흥, 보성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광주, 나주, 순천 등이 행정적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 4) 현존본 조사에서 김안국, 안현, 유희춘, 이정, 김성일, 홍흥중 등이 간행의 주관자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全南地域의 관찰사, 목사, 현감 등으로 부임해서 책의 간행을 주도하였다. 지방관의 간행의도가 출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주제별 분석결과 儒家類, 別集類, 小學類, 總集類, 藝術類, 傳記類, 醫家類, 四書類, 禮類, 兵家類 순으로 간행이 많이 이루어졌다. 문학관련서적(별집류와 총집류)과 성리학과 관련된 서적(경부와 유가류)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많이 간행되었다. 또한 예와 효, 바른 행실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그와 관련된 서적(예류, 전기류, 효경류)도 많이 간행되었고 소학류의 간행빈도는 교육에 관심이 많았음을 반영하고, 예술류의 간행도 그 당시 세인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자부 중 의가류 9종과 병가류 5종이 간행되었는데 나주에서 의가류 3종이 간행되었고, 광주에서 병가류 3종이 간행되었다. 상대적으로 사부의 책들은 전기류를 제외하고는 극히 미미하게 간행되어서 임진왜란 이전의 사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6) 편저자별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편저자는 48종이고 중국의 편저자는 64종으로 나타나 중국에서 전래된 서적이 조금 더 많이 간행되었다. 조선시대의 편저자가 44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별집류가 12종으로 주요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특기할 만한 저자는 이정, 김안국, 이황인데, 이정은 『경현록』, 『성리유편』 등을 저술하였고, 김안국은 『이륜행실』을 저술하였으며 『여씨향약』과 『정속』을 언해하여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는데 힘썼다. 또한 이황의 저서 4종이 그의 문인이던 김성일의 주도로 나주에서 간행되었다. 중국의 편저자 중 송대의 편저자가 가장 많은 종수를 보이는데, 이는 朱熹가 편찬하거나 저술한 책이 10종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송의 시문집이 8종이 들어 있어서 그 당시의 이 지역 선비들의 문학적 취향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많은 전적이 逸失되어 현존본이 많지 않은 점이 연구의 어려움이다.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를 지속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4.
이인영. 『淸芬室書目』. 서울: 보고서, 1993.
이희권. 『역사로 보는 전라도』. 전주: 신아출판사, 2005.
전남대학교 문헌정보연구소·전라남도. 『全南 書院의 木板』.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배현숙. “宣祖初 地方 冊板考.”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299-339.
배현숙. “續蒙求分註 版本考.” 『書誌學研究』 26집(2003). 133-174.

- 沈慶昊. “錦城開刊『溪山雜詠』과 庚子本『退溪文集』의 간행경위에 대한 일 고찰.” 『書誌學報』 제19호(1999). 65-98.
- 안미경. “조선시대 千字文 現傳本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7집(1999). 83-123.
- 최재남. “<鄉村十一歌>의 性格과 朝鮮前記 士林의 鄉村生活.” 『古典文學研究』 Vol.9(1994). 157-191.
- 고영진. “호남사림의 형성과 특징.”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 광주: 사회문화원, 2002. 46-56.
- 안진오. “호남의 유학사상.” 『호남전통문화론』.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9. 322-331.
- 이이화. “광주 전남의 역사.” 『정의로운 역사 멋스러운 문화』. 광주: 사회문화원, 2007. 15-40.
- 池春相. “南道文化 特質論.” 『호남전통문화론』.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9. 30-42.
- 김성수. “16세기 鄉村醫療實態와 士族의 對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01.
- 金致雨. “攷事撮要의 書誌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2.
- 남지만. “高峯 奇大升의 性理說 研究.”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2009.
- 은석민. “『活人心』의 의학사상 연구 - 『新刊京本活人心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2001.
- 『朝鮮王朝實錄』.
- 『眉巖日記』.
- 『故事撮要』.